민주 지역의원들 '정치적 한계' 넘어설까

강기정·이용섭·황주홍·김동철·우윤근 등 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 줄줄이 도전장

"호남정치 미래 좌우할 결정적 계기…소통·결집 절실"

대선 패배 이후, 호남 정치권의 도약을 요구하는 민심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민주당 지도부 선출은 호남 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소통과 결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민주당 대표에 3선의 강기정(북구 갑), 재선의 이용섭(광산을) 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아직 단일화는 이뤄지지 안았지만 현재의 당권 구도로 본다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컷-오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컷-오프 이후, 주류 주자들 간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한길 의원과 1대 1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 판 승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초선의 황주홍(강진·장흥·영암)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다. 최고위원 경선은 컷-오프에서 1인3표, 본선에서 1인 2표제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호남 표심만 결집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내 쇄신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진영은 물론 중도 진영에서도 황 의원에 대해 폭 넓은 지지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5·4 전당대회 직후, 선출되는 원내대표에는 광주의 김동철(광산 갑) 의원과 전남의 우윤근(광양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3선으로 당내에서 일정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세를 확산한다면 원내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아직까지 소통과 신뢰의 기반이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이 여전하다는 평가다.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있는 것은 물론, 상호간이 견제와 불신 등이 뒤엉켜 좀처럼 정치적 결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호남 정치권이 도약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차기 지도부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단 한명도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두 번의 대선 패배와 민주당의 위기, 안철수 변수 등 정치적 격변기에서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지면서 또 다시 정치적 변방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의 위기는 지역 정치권에 또 다른 기회"라며 "지역 정치권이 과감한 도전과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결집을 통해 새로운 비전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한길이냐 反김한길이냐

민주 전대 앞두고 비주류-주류 전선 격화

민주통합당이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주류의 김한길 의원과 주류 진영의 반(反) 김한길 주자들 간 전선이 격화되고 있다.

당장, 김 의원에 맞서고 있는 강기정·신계륜·이목희·이용섭 의원 등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구체적 연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에 이은 두 번째 회동이며 '혁신연대'를 명분으로 김 의원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컷-오프를 기점으로 주류 주자들 간의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분리해서 연대하는 방안도 주목되고 있다.

역시 '혁신전대'를 내세워 집단 행동에 나선 초선 의원 30여명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모임을 갖고 독자 후보를 배출할지, 아니면 지지 대상을 정할지를 논의한다.

모임 주도자들이 범주류에 속해 큰 틀에서 '반(反) 김한길 연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이들은 '당 대표 중간평가 카드'를 모색했으나 "김 의원이 당선될 경우 대표직 수행 도중 낙마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범주류와 주류 성향의 주자들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대선 지휘 라인과 무관치 않은 만큼 책임론을 피하면서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新) 패권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김 의원은 이르면 2일 자체 혁신안을 발표, 고강도 혁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패배와 혁신이 대립되는 것이 아닌 만큼 '대선패배론 vs 혁신'이라는 구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판단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주류 세력의 담합은 결국 민주당을 죽이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혁신은 주류 세력이 겸허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일각에서도 주류 측의 급격한 연대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시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이동섭 '노원 병' 불출마

안철수 지지 선언…여론 호전 전망

민주통합당 이동섭 노원병 지역위원장은 1일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과 함께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 병의 보궐선거 구도는 다소 나마 안철수 후보에 유리하게 형성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전 안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조만간 이 위원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대선 때 경험도 떠오른다"며 "쉽지 않은, 아니 어려운, 뼈를 깎는 결단이었으리라 짐작이 간다"고 이 위원장의 결단을 평가했다. 안 후보는 또 "지지자들의 상실감도 마찬가지다. 지역 정치 선배인 이 위원장은 물론이고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담으려는 노력을 하겠다. 지역 토박이인 이 위원장의 경험, 조언을 크게 받아 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의 불출마 결정에 따라 노원병 선거는 새누리당 허준영, 진보정의당 김지선, 통합진보당 정태흥,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동섭 민주통합당 지역위원장과 1일 오후 서울 상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6인 협의체' 월 1회 정례화…금주 첫 회의

여야는 지난해 대선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공약의 이행을 위해 당 지도부급 6인 협의체 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6인 협의체에는 양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오는 3일 실무회의에서 우선 추진할 민생공약 의제를 논의한 데 이어 4~5일께 열릴 예정이다.

양당은 정례회의와 별도로 현안이 생기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협의체에서는 국회개혁·정당개혁·정치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와 대선 공통공약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쟁점 사안의 경우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상임위에서 이견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책위의장 논의를 거쳐 6인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경이 편성되면 일자리 확충과 민생·서민경제 활성화를 우선 고려하고 세입 결손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혜자의 '아름다운 양보'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없이 임내현 의원 추대 할 듯

경선 가능성이 높았던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가 1일 박혜자(광주 서구 갑) 의원의 대승적 양보로 경선 없이 임내현(광주 북구 을) 의원으로 합의 추대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이 있는 상황에 광주시당위원장 선거마저 경선으로 치러질 경우 자칫 자리 싸움이나 분열 양상으로 비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저 보다 더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는 임내현 의원에게 후보를 양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선 이후 상심해 있는 지역민심과 당심을 추스리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당 운영을 위해 시당위원장에 나서고자 했었다"며 "하지만, 경선을 하면 지역 민심이 더 갈기갈기 찢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통과 배려, 양보를 통한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원과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과 임 의원은 지난 31일 저녁과 1일 오전 두 차례 단독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으며, 박 의원은 이날 시당위원장 양보의 뜻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두 의원 간 합의를 요청했지만 무산됐었다. 이 자리에서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방안을 강구키로 해 경선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임내현, 박혜자 두 의원 간 합의만 이뤄지면 시당위원장을 추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날 박 의원의 양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임 의원이 합의 추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 몸이 피로하다!
눈은 간장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 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뻗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은행 6층(신세계백화점사거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19호 [광고]
광주점 062-368-5075

인다라한의원 광주점 원장 김동건
현대인 누구나가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ㅣ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의 해결법 ㅣ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깔깔하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예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옆구리가 결리거나 아프다

임대
▶6층건물, 각층 110평, 옥상 광고함
▶병/의원, 약국, 커피숍 편의점 식당, 학원 등등
목포2호광장/구, 맹수한의원 건물
매매
▶대지 144평, 건물 437평, 2004년 신축
▶매매가 14억 5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 직접 상담합니다. H.P : 010-3605-5000